

"어느 겨울밤의 추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기술지원부장 박병상

‘참쌀떡이나 메밀묵 사려. 참쌀 떡~ 억...’

며칠 전 내린 눈으로 골목은 빙판 길로 변하고, 바람이 몰고 온 강추위 속에 참쌀떡 장수의 구성진 목소리가 40여 년 전의 추억으로 찾아들게 한다.

이 날도 동생들과 냇가에서 앉은뱅이 썰매를 탄 것 외에는 별다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아랫방에 배를 깔았다.

머슴이 해놓은 갈비로 아랫목은 철철 끓었지만 외풍이 심하여 얼굴만 삐죽이 내놓고 호통불에 의지하여 그 당시 우리들에게 인기였던 '학완'을 입고 있었다.

그것도 지루하여 시나브로 잠에 빠질 즈음, 푹, 푹, 푹, 텃밭으로 내놓은 조그마한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반가움과 놀라움에 뛰어 나가보니 열 집 또래였다.

'강 건너 친구 집에서 어제저녁에 제사를 지내 또래들이 전부 모이기로 했다'면서 같이 가자는 권유였다.

논 밭을 지나고 들다리를 건너서 도착하니 벌써 여러 고무신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고구마와 무

우를 담아놓은 가마니가 즐비한 좁은 방에는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와 술잔이 담배 연기 속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뒤이어 여자또래도 4명이 와서 9명으로 늘어났다.

술잔을 돌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갔다.

남자들보다 두세 살이나 많았던 여자 애들은 어느새 사랑을 알았고 누구는 누구를 죽자살자 쫓아다녔다는 통속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월사금을 못내어 쫓겨난 친구들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다는 얘기하며, 며칠씩 점심을 굶다가 원조 물자로 나누어준 분유를 먹고는 대다수가 설사를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가슴아파했다.

지금은 20-30분이면 도착하는 도사에서 실컷 볼 수 있는 기차를 구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자동차보기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 교장선생님이 훈시를 하는 전체조회 때라도 트럭소리가 들리는 날엔 모두가 운동장 독에 올라서서 "육발이 사발이 는 엔진문제요"라는 노래와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들어올리며 육을 하는 애들로 한바탕 소

동을 치르고서야 다시 모여 조회를 마쳤던 그날들은 가슴깊이 숨겨둔 우리들만의 그리움이였다.

시범학교를 갓 졸업하시고 부임한 여 선생님이 우리담임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 방과후에 교실에서 뽀뽀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늦게까지 교실 밖 화단에 숨어서 가슴 조이며 지켜보던 순간들, 쥐꼬리 검사를 하는 날이면 오징어 다리에 먹물을 적당히 묻혀서 선생님을 속였다는 말에 모두가 배꼽을 잡으며 좁은 방을 뒹군다.

여자 애보다 공부 못한다는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고는 이것은 남자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우물기에 걸레 빨터 나온 그녀를 몇 명의 남자들이 겁주었던 기억은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팔, 다리에 상처가 나면서 채취한 아카시아 씨앗과 바꾼 연필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먼 냇가에서 담뱃줄을 들을 주위 나르며 받은 팔뚝의 빨간 도장 숫자를 헤아리며 누가 빠른지 시샘하던 무공해의 장난꾼들, 겨울이던 난방용 장작을 꺾안고는 서둘러 불피우려 뛰어가던 개구쟁이 친구들.

따들림당하거나 싸움에 진 다음날엔 누구는 엄마를 데려오고 누구는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았다는 첩 없던 그때가 줄줄이 이어진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문제이던 시절- 아침은 콩보리밥으로 때우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씨레기 죽으로 연명하던 그 때에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던 전과 지도서와 수련장이었다는 여자동기의 말에 콧잔등이 시큰해온다.

요사이 초등학생이면 2-3가지 과외는 기본이고 넘쳐나는 게 참고서고 학습지이거늘, 48명중에 나 혼자만 가졌었다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드디어 술도 떨어질 무렵이 되자 유행가 따라 부르기로 바뀌었다.

순번이 되어도 제 때 노래가 이어지지 않으면 "노래를 못하면 시집(장가)를 못 가느니, 안 나오면 처들어간다느니," 하면서 욱박지르기도 한다. 이것도 시들해지고 배속이 출출해지자,

'애들아, 닭서리 허러 가는 게 어때?'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저기 윗동네로 가자.

그 집 풀머슴으로 일하는 동생한테서 정보를 입수했는데 살이 통통한 암탉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 모인 9명중에 나만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외지에서 다니는 중학교 3학년이라 오랜만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어리둥절하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간혹 경험해 본 눈치다.

이런저런 의논으로 3사람이 차출되고 그 중에 유일한 나는 망보기로 끼여들었다. 1월 초순이라 초생달은 벌써 사라진지 오래고 철쭉 같은 밤중에 관솔 불에 의지하여 돌다리를 힘겹게 건넜다.

설마 했더니 찾아 간 그 집은 신작로 옆에 위치한 우리 옆집이었다.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그 집에도 불빛하나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이 집은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자고 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이런 경험이 전무한 나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없이 약속대로 대문 옆에 엉겨주춤 서있었고 친구들은 얇은 담을 훌쩍 넘어 들어갔다.

담들이 이리저리 피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면서 내 간도 녹아 내린다. 무서움과 걱정으로 자꾸만 작아지려는데 담을 한 마리씩 거머쥔 친구들이 내 앞을 내달린다.

누군가가 뒷덜미를 낚아채는 듯한 두려움에 눈과 발을 정신없이 달렸다. 그들은 저 만치 달아났지만 뒤쳐진 내 등으로는 쉼 없이 땀이 흐른다.

둘다리를 잘못 디더 한 쪽 발이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잡으러 오는 두려움에 발이 얼어드는 차가움도 뒤로하고 겨우 도착했더니, 두 명은 무용담에 정신이 없다. 여럿이 달려붙어 담을 잡고 양념을 만드느라 부산을 띤다.

고기를 뜯느라 정신이 팔려있는데 불쑥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양갈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놈들 이제야 잡았구나. 지난번 닭도 너희들 짓이지. 그래 잘됐다.

다들 주재소로 가자.'

내가 망을 보면서도 계속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어제만 해도 '진지 잡수셨습니까?'라고 두 번이나 인사드린 할머니이다.

친구들 사이로 얼굴을 피뭇였지만 나에게 대한 원망은 더욱 심하였다.

옆집에 산다는 네가 말리지는 못할망정 망까지 봤다는 말에 허까지 꼰꼰 차시며 진노 하였고 중학교 다니는 녀석이 싸수가 노랑다며 꾸중을 그치지 않았다.

한쪽다리가 불편하신 그 분은 소변보러 담 장 옆에 있는 뒷간에 나오셨다가 바닥에 흠뻑려져 있는 날개들을 보고 불켜진 집을 찾아왔다고 하신다. 우리의 변명에도 아랑곳없이 주재소로 가지지는 어름장에 지난번에 도둑맞았다는 3마리까지 합해서 5마리 값을 고스란히 물어야만했다.

현금이 귀했던 터라 쌀, 보리쌀, 콩 등을 거두고 장날에 현금으로 만들어서 갖다드렸다.

들키지 않았다면 하나의 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부모들에게 혼나고 만나는 어른들마다 '밤참 맛이 어떻더냐?' 는 비아냥거림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며칠간이 지금도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